

# 2016-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 시행

##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 잇는 글로벌 의제 채택

### '건강과 웰빙' '양성평등' 등 17개 목표 수립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새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2016~2030년 시행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지난해 9월 열린 제70차 유엔(UN)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동의하에 채택됐다.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2015년)를 잇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들을 강화했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염두에 둔 발전방향을 토대로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모든 국가의 참여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No Poverty(빈곤 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한다.

2. Zero Hunger(기아 종식)=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건강과 웰빙)=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인구의 복지를 증진한다.

4. Quality Education(양질의 교육)=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시킨다.

5. Gender Equality(양성평등)=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할을 강화한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깨끗한 물과 위생)=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신식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시킨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혁신과 인프라 구축)=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Reduced Inequalities(불평등 완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을 보장한다.

13. Climate Action(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한다.

14. Life Below Water(해양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한다.

15. Life on Land(육지생태계 보호)= 육지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중지 및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제도를 확립한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 한다.



유엔은 밀레니엄개발목표 뒤를 잇는 글로벌 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채택했다. <출처: 유엔 홈페이지>

15. Life on Land(육지생태계 보호)= 육지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중지 및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제도를 확립한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 한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행동
14. 해양생태계 보호
15. 육지생태계 보호
16.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다.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기사망률을 1/3로 경감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마약류 약물 남용과 알코올을 섭취를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50%로 경감시킨다.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출산보건 연계 등을 포함한 성건강 및 출산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고, 양질의 기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기초의약품 및 백신을 공급하는 등 평등한 보건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내 및 국외 건강위험의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유독화학물질과 공기, 토양,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에서 야기되는 질병과 사망을 경감시킨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과 백신 관련 R&D를 지원하고, 저렴한 기초의약품과 백신을 제공한다.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보건재원, 보건인력의 육성, 훈련, 채용을 확대한다.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내 및 국외 건강위험의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 미국 병원에 뿌리내린 한인간호사 성공담

근거기반간호  
임상간호연구결과

### 초기 언어장벽과 텃세로 어려움 겪어 의사 및 상사와의 수평적 관계 만족 간호사 복지 존중하는 병원 시스템

### 뛰어난 실무능력과 성실성 인정받아 전인간호 실천하면서 자긍심 가져 끊임없는 자기개발 통해 자리매김

미국 병원에 취업한 한인간호사들은 초기에는 언어장벽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뛰어난 임상실무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 뿌리내렸다.

이들은 서극숙 가제대 간호학과 교수의 논문 '한인간호사의 미국 병원 내 임상실무경험'에서 밝혀졌다.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JKAN 2016년 4월호에 실렸다.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연구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병원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한인간호사들을 만나 심층 면담했다. 간호사들의 평균 나이는 40.3세(31~49세), 미국에서의 임상경력은 평균 5.6년(1년 10개월~10년)이었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8가지 본질적 주제가 도출됐다.

△**현지 구성원의 텃세로 마음 고생함**= 초기에는 동료들의 텃세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미국간호사들의 직업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경쟁상대로 인식됐고 텃세에 시달린 것이다. 병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의 인물로 지목받는 불리한 입장이 되기도 했다. 한인간호사들은 불평등과 인간적인 차별을 감수하면서 동료들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했다.

△**높은 언어장벽으로 담당하지 못함**= 미국 취업을 위해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해왔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투리를 듣고 환자 상태를 기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홀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게 될 때를 가장 우려했다. 숙련된 간호처치 실력으로 완벽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 때문에 섣불리 내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아시아 간호사라는 위축된 신체성을 경험했다.

△**합리적인 수평적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기**= 의사가 간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방식이나, 상사가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며 격려해 주며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의사나 상사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임을 실감했다. 동료들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태도에서 소외감과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긍정하고 수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

△**소송이 난무한 임상현장에서 늘 긴장함**= 환자에 대한 간호능력이 증진되면서 자신감을 갖는 한편 소송이 난무한 임상현장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고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소송으로부터 자신의 면허를 지키고자 현실에 충실해야 했다.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업무규정을 지켜야 하고, 생존을 위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터득했다.

△**인간존중의 사회제도에서 안정감을 느낌**= 환자 관리와 간호사 복지를 존중하는 병원 시스템

에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했다. 65세 정년제도, 학습기회와 재원 보장, 건강을 존중하는 병가(sick call) 제도 등을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발생 시 병원의 대처 방안과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운영은 힘든 근무를 극복하게 하는 요인이 됐고, 의료진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줬다.

△**뛰어난 임상실무능력과 선배 한인간호사의 후광으로 자신감을 유지함**= 한국에서 배운 기초간호지식과 임상경험이 도움이 됐다. 특히 정맥주사를 숙련되게 놓을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실무에 임할 수 있었다. 신속하게 간호수행을 마치면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여유로움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을 때 고국의 간호교육제도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선배 한인간호사들이 이미 좋은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식했다.

△**진정한 전인간호를 실천함**= 소수 환자를 배정받아 간호하는 미국의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졌다. 이론으로 배워왔던 환자 중심의 전문직 간호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담당 의사와 환자 치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정서나 문화적인 면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전인간호를 실천했다. 이는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성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진정한 간호사로 거듭남을 의미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자기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음**=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 나은 간호사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미래를 설계했다. 굳은 일이 있으면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영화, 신문, 소설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언어 습득, 문화 이해, 임상실무기술, 적극적 태도 등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 자리매김했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